

작년 수출 1위 품목, 광주 40개 전남 120개

냉장고·청소기, 석유화학·철강 선두 수출액 순위는 전국 9위·7위 머물러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4643개 품목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총 160개 품목에서 다른 지역을 제치고 수출액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출 순위는 각각 전국 9위와 7위에 머물렀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내놓은 ‘2012년 광주·전남지역의 수출 1위 품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는 40개, 전남은 120개 품목에서 다른 지역을 제치며 수출

액 1위를 차지했다. 수출 1위 품목 수는 지역별로 지난해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을 그 지역의 1위 품목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냉장고와 진공청소기, 고무 타이어 등 23개 품목에서 전년에 이어 수출 1위를 유지했으며 면사, 축전지, 건조기 등 17개 품목에서도 다른 경쟁지역을 추월하며 신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냉장고

및 진공청소기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송기계 3개 품목도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수출 1위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석유화학, 철강 등 75개 품목이 전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농수산물식품 등 45개 품목 역시 새로이 수출 1위 품목 명단에 올랐다. 전남의 석유화학 수출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김·전복·해삼 등 수산물식품도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을 나타내며 국내 농수산물 수출 전진기지의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광주와 전남

의 수출 순위는 우리나라 16개 지자체 가운데 각각 9위와 7위에 머물렀다. 또 수출 1위 품목 보유 순위는 14위와 10위를 기록해, 추가 1위 품목 육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광주·전남의 수출액과 수출 1위 품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광주의 수출액은 2009년 88.8억 달러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41.4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 반면, 수출 1위 품목 수는 2009년 37개에서 40개로 3개 품목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수출액은 233.0억 달러에서 419.1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1위 품목 수는 118개에서 120개 품목으로 2개 품목이 늘어나는데 그

쳐, 수출액과 수출 1위 품목이 10개 이상 증가한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과 큰 대조를 보였다.

한편 서울은 1388개 품목에서 수출 1위를 차지하며 1위 품목 최다 보유 지역으로 꼽혔으며 이어 경기(1166개), 경남(332개), 부산(300개), 경북(254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1위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수출 1위 품목을 육성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형적 수출 확대만이 아닌 내실있는 수출경쟁력 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시 홍콩서 1억달러 투자유치 환경산업분야...설비 공장·연구소 설립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홍콩에서 총 1억 달러 규모의 환경산업 분야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광주시와 AK D&D(대표 필립 김), (주)엔탑스(대표 염승열) 3자간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AK D&D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찬드라 분다 드위 기금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1억 달러를 투자, (주)엔탑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뒤 광주에 환경설비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이곳에서 제조된 환경설비 등은 향후 찬드라 분다 드위 기금에서 추진하는 아프리

카 및 동남아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펼쳐 나기로 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찬드라 분다 드위 기금은 환경개선과 결식 아동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공익 기금이다. 이노비즈 인증기업인 (주)엔탑스는 화순에 위치한 환경설비 제조전문업체로, 환경분야 특허를 30여건 보유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환경산업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이번 투자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농어촌공사 年7만개 농촌형일자리 만든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물 관리에 지역농민 참여 등 7만개의 농촌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17일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새 정부의 국민행복 정책 실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27억원을 투입, 지역농업인 7만 7000여명이 농업용수 관리와 공급에 참여하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공사는 영농철 급수기간 4~9월까지 6개월간 약 240억원을 투입, 지역 농업인 7000여명을 계절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은 영농에 종사하면서 수

리시설물의 점검·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87억원을 투입, 연인원 7만여명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농수로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 저수지 환경개선, 양·배수장 정비 등 농업용수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농업기반시설 맞춤형비는 풍수에 대비 필수작업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를 나눠 공종별로 구분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풍년농사를 위한 안정적 물 공급은 물론 농촌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3년도 상생경영 협약식 및 우수협력회사 포상식

금호타이어가 지난 15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상생경영 협약 및 우수협력회사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중앙연구소 대강당에서 김창규 사장 등 회사 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 및 직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협력사 89개사와 상생경영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진행하고 우수협력회사 19개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호남권 작년 소비자피해 사례 10.7% 증가

전국 평균보다 3.1% 높아...품질 이상이 37%로 1위

지난해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접수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가 2012년에 접수한 호남·제주지역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2274건으로 전년도 2054건보다 10.7%(220건) 증가했다.

전국 증가율 7.6%보다 3.1%포인트 높은 수치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1512건(66.5%), ‘통신판매’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가 762건(33.5%)이다.

특히 방문판매는 281건 접수율과 전년의 210건보다 33.8%(71건)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품질 이상’이 837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절’ 436건(19.2%), ‘부당행위’ 338건(14.9%), ‘계약불이행’ 218건(9.6%) 등의 순이다.

품목별로 ‘의류 등 신변용품’이 422건(18.6%)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고 ‘차량 및 승용품’ 271건(11.9%), ‘보환’ 207건(9.1%), ‘정보통신 서비스’ 172건(7.6%), ‘문화·오락서

비스’ 164건(7.2%), ‘정보통신기기’ 146건(6.4%)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피해유형을 보면 ‘의류 등 신변용품’에서는 품질 관련 피해가 312건(73.9%)으로 가장 많고 계약 관련 피해는 110건(26.1%)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교환·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며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특수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감시와 고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경영과정 운영

기업인 50명 선착순 모집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장상근)가 17일 오는 25일부터 ‘2013 기업인 디자인경영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지원한 ‘지역디자인 혁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디자인·브랜드에 대한 마인드확산을 통해 기업의 기업·제품의 부가가치와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3차에 걸쳐 실시되며 ▲디자인경영과 창의력개발(25일) ▲디자인경영 성공사례(4월1일)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창출(4월5일) 등으로 이어진다. 김용섭 남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 구규우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등이 강단에 설 예정이다.

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최근 기아자동차는 CDO(디자인 최고책임자)를 영입하고, 디자인경영

을 통해 획기적인 성장을 이뤘다”며 “디자인경영 과정은 중소기업도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신청은 22일까지 선착순 50명만 받으며 교육비는 무료다. 문의 (062-611-5057).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50~60대 경제적 행복지수 가장 낮아

100점 만점에 30점대

대한민국의 50·60대는 고용불안과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행복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4위에 불과하다. 이를 끌어올리려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이 17일 세계 행복의 날(20일)을 앞두고 내놓은 ‘세대별 행복추이’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이 추산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40.4점에 불과했다. 특히 50대는 36.4점, 60대 이상은 35.7점으로 다른 연령대(40.4~45.9점)를 밑돌았다.

/연합뉴스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精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억제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대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안과라한의원 중추원 원장 김동진

만성피로

침침해지고 일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고 쉬기 등 나쁜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안과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안양김씨 선양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안양김씨 광주광역시총친회 회장 김경녕

문의 062)524-6622, 010-2972-2357

거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위인

고려명장 김취려사료집 출판기념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열공(김취려)장군 사료집 출간을 축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각계 각층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출판기념회를 갖고자하오니 함께하셔 빛내주시면 합니다.

위열공(威烈公) 휘(諱) 취려장군 (威福將軍 1172~1234) 영정(影幀)(전쟁기념관 봉안)

일 시 | 2013년 3월 19일(화) 10:30~14:30 장 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2·3층)**

주 최 | 안양김씨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주 관 | 안양김씨 광주광역시 총친회

안양김씨 선양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안양김씨 광주광역시총친회 회장 김경녕

문의 062)524-6622, 010-2972-2357